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22. 4. 3 ~ 2022. 4. 23 제263호

포토에세이

▲ 르완다 한 교회에서. 제공: WMM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

아기 예수를 처음 품에 안았던 마리아가 그랬을까? 여인의 얼굴에 가득 찬 기쁨이 이보다 충만할 수 없다. 그토록 만나고 싶고, 만져보고 싶었던 뱃속의 아기를 열 달이 지나 드디어 안았을 때처럼, 4000여 년 구약의 역사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실체로 오신 것을 보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실 어린양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천국에서 실제로 만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GPNEWS]

美 태아 보호법 잇따라 제정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등 태아 생명 존중 법안 제정

낙태죄 폐지 이후 법적근거가 사라져 태아의 생명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달리,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법들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이다호주 브래드 리틀 주지사(68·공화)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에 서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낙태 금지 법안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으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21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주지사는 다운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저스티스 주지사는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에 의료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애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 법안 SB 468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률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태아에게 장애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러나 염색체 장애나 형태학적 기형이 비정형 유전자 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SB 468은 "의료 응급 상황이나 의학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제외하고,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태아의 장애 때문에 낙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낙태를 시행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이러한 사실을 환자 차트에 기록하고 공중보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주지사는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요구할 때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원 법안 647에도 서명했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은 SB 647과 SB 468에 서명하기에 완벽한 날이다. 두 법안 모두 다운증후군 공동체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생명보호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마조리 대넌펠서(Marjorie Dannenfelser) 대표는 이 법은 "오늘날 미국의 우생학적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발걸음"이라면서 "다운증후군 환자의 99%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소중히 여겨지거나 (가정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가장 취약한 자궁에서 파괴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저스티스 주지사의 법안 서명은 몇몇 다른 주들이 유전적 이상 진단을 바탕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다운증후군, 인종, 성별에 따른 낙태를 금지하는 테네시주법 시행을 허용해 이 법을 가로막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9월 애리조나주에서는 유전적 이상을 이유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47)

복음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는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큰 배를 짓는 조선공학은 뛰어난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어디 배를 짓는 일뿐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짐승을 데려오는 일만해도 그렇습니다. 짐승은 일부일처제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다니는 사자 한 마리를 간신히 끌어다 놓고 다른 놈을 데리러 갔다 오면 먼저 끌어다 놓은 놈이 그새 어디로 가버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양 한 쌍을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이리를 데려다 놓고, 또 다른 짐승을 데리러 갔다 와보니 양은 뼈만 남고 이리는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민 하나도 안하고 믿음으로 순종만 했더니 짐승을 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일러스트=김경선

그들은 방주 안에서 1년이나 살았습니다.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애써 방주에 태운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라도 일어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뢰가 사방에 널려 있는 셈이니 단 한순간도 믿음 아니면 못삽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돛대도 삿대도 없는 방주는 키가 없으니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주에 오른 그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근심걱정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인도 목회자,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해

공산당 테러 조직 낙살라이트 소행

인도의 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해 충격에 빠진 가족과 지역 크리스천들을 위해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도를 부탁했다.

인도 비자푸르 차티스가르(Bijapur Chhattisgarh) 지구의 안간팔리(Anganpalli) 지역에 살고 있는 얄람 샹카르(Yalam Shankar) 목사가 최근 자택 앞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얄람 목사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손편지와 팸플릿 형태의 협박 편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얄람 목사는 지난 1월, 현관 앞과 집안에 뿌려진 소책자들을 발견했다. 그 팸플릿에는 자신의 이름과 이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27명의 목사와 크리스천들의 이름과, 이 지역에서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 소책자에는 낙살라이트(Naxalite)라는 공산당 테러조직의 이름으로 서명돼 있었다. 낙살라이트는 마오쩌둥의 정치노선과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인도 공산당 반군 테러 조직이다.

얄람 목사는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는 "얄람 목사를 살해한 것은 낙살라이트가 분명하다."며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이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낙살라이트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살라이트가 기독교를 반드시 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 공동체들 내의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도록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살라이트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낙살라이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픈도어 선교회는 ▲ 얄람 목사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교회의 보살핌이 가정에 있도록, ▲ 기독교를 향한 지속적인 적대 행위들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도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도록, ▲ 극단주의자들과 낙살라이트들의 만행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고, 분노와 적대가 아닌 평화와 사랑의 복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 인도 땅에 복음이 더욱 확장되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GPNEWS]

▲ 인도의 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산당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 제공: 오픈도어 선교회

국가부도 위기 스리랑카… 타밀족 주민들, 경제난에 인도로 탈출

국가부도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스리랑카 주민들이 극심한 경제난에 인도로 탈출하고 있다고 힌두스타임스 등 인도 현지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2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해안에 두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 난민 16명이 도착, 인도 해안경비대 등에 의해 구조됐다. 4달 된 아기 등이 포함된 가족 6명이 먼저 구조됐고 이후 22일 밤 또 다른 스리랑카 난민 10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스리랑카 북부와 인도 동부, 남부 등에 걸쳐 사는 타밀족 출신으로 밀입국선을 타고 인도로 들어왔다.

이번에 인도로 입국한 난민 가젠드란은 "스리랑카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 없다."며 생필품은 암시장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스리랑카는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던 관광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붕괴되면서 관련 종사자 약 20만 명이 실직했다.

또한, 국가 재정도 바닥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외환보유고가 10년 만에 최저인 16억 달러(약 1조 9080억 원)를 기록했다. 문제는 중국에 60억 달러(7조 1550억 원)가 넘는 차관을 상환해야 되면서, 이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어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살기 어렵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세금을 감면, 세수(稅收)가 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위기에 몰렸다.

또, 스리랑카 정부가 외화 부족으로 인해 석유를 구해오지 못하면서 단전과 연료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현재 수도 콜롬보 등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며 대통령의 사임 등을 요구하는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스리랑카 당국은 인도, 중국 등으로부터 '급전'을 빌려오고 있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4월 중 차관 도입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스리랑카는 140년간 영국의 식민통치 기간에 타밀족 우대, 싱할리족을 차별하는 분리 통치 정책으로 시행돼왔으며 1948년 독립 뒤, 이들 두 종족간의 내전으로 아픔을 겪었다. 그 이후 두 종족간 갈등이 존재하던 이 나라에서 2009년 타밀반군이 27년간의 내전에서 패한 이후, 타밀족 출신은 사실상 이등시민으로 전락하며 다양한 차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해안을 탈출해 인도로 향한 스리랑카 난민들도 대다수가 타밀족 출신인 것은 자국 땅에서 생존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스리랑카 현지 교회는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나라의 절대 다수는 불교 신자다. 그러나 주민들은 교회 등 기독교 관련 기관들이 이웃을 돌보는 것을 알고 찾아오고 있다. 본지 통신원은 이미 캔디 주변 디가나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에 쌀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회들의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우실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소말리아 알샤바브, 모가디슈 공항 공격 7명 사망… 샤리아법 요구

소말리아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알샤바브 대원들이 지난 23일 수도 모가디슈의 공항을 두 차례 공격해 최소 7명이 숨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소말리아 정부를 반대하며, 엄격한 샤리아 이슬람 율법 시행을 강조하는 알샤바브는 모가디슈 등에 치명적 공격을 감행하고, 외국 평화유지군을 반대하고 있다.

식량난에 더해 테러단체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소말리아를 위로해 주십시오. 무자비한 이슬람 율법을 지지하는 알샤바브에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선교단체와 기독교 구호단체가 모두 추방당한 이후 아골 골짜기 같은 이 땅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미얀마 양곤, 정전 사태 잦아지며 심각한 식수난

쿠데타 발발 14개월째를 맞는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에서 정전 사태가 잦아지면서 수돗물 공급도 중단돼 식수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양곤의 서민들은 쿠데타, 코로나19, 전력난에 이어 이제는 먹는 물조차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쿠데타 군부에 맞서 수많은 무장투쟁 단체들이 결성돼 칼과 창으로 싸우는 비극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국가가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 무고한 국민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길 강청합니다.

미 백악관, 北 ICBM 발사 강력 규탄… 한·미는 맞불 연합 사격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역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고 VOA가 전했다. 또한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미가 맞불 성격의 연합 사격훈련에 나섰다. 한편, 북한은 신형 ICBM 추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한 후에도 위성 개발에 계속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이 수없이 굶어 죽어도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욕심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꾸짖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죄와 사망 한가운데서 의로움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비춰 주시길 구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4월 4일 ~ 2022년 4월 23일

4월 4일 ~ 4월 9일 ▶광주 북구 / 광주예수마을교회(박**)010-2330-5849, **4.4~8(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4.4~9(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4.5~7(09~21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4.7(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4.8(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4.8(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4.9(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4교회 진행중.

4월 11일 ~ 4월 16일 ▶강원 춘천 / 춘천중부교회(김**)010-4612-7249, **4.12(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4.12~15(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4.12,14~16(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16(0시)~19시(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둘람공동체(정**)010-3697-0641, 그 외 5교회 진행중.

4월 18일 ~ 4월 23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4.1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18~23(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4.19,21~23(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21(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4.21(18시)~23(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4.22(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3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월드포커스 | 우크라이나

Pray for Ukraine

“어디서 어떻게 오셨어요?”… 난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 우크라이나 난민들. 사진: 필자 제공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현장 리포트를 통해 피란민들의 상황을 들으며 기도제목을 소개한다. 〈편집자〉

3월 13일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에 뉴스를 통해 폴란드 국경에서 20km 떨어진 르비브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곳에 살고 있는 나타샤는 새벽 3시에 경보가 울려 깨어나 새벽 5시쯤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창문으로 목격했다고 했다. 35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우리 가족은 모두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날 나타샤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수많은 난민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600km를 달렸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성도님이 난민을 위해 자원하여 섬기고자 등록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섬김은 마치 왼손 몰래 오른손이 하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일 놓여 있는 맛있는 빵과 음식들은 성도들이 직접 집에서 준비해 오는 것이다.

3월 14일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오빠와 함께 국경에서 자원봉사로 섬겼다. 우리는 통역으로 지원했지만 온종일 텐트 청소와 감자를 썰어야 했다. 다음 날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끔 통역하면서 만났던 난민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황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질문 하나에 난민들은 곧바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한다. “몇 주간 지하에서 지내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다 불탔고, 더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려다가 러시아군들이 가까워져 결국 30시간 서서 기차를 타고 슬로바키아에 왔어요. 기차가 키이우를 지날 때는 폭격이 있을 수 있어 모든 불을 다 끄고 갔어요. 우리는 정말 무서웠어요.”

홀로 오신 할머니는 지하에 계시다 슬로바키아에 오셨다. 그녀는 작은 신발을 신고 오셔서 괜찮은 신발을 함께 찾다가 결국 못 찾고 그냥 길을 떠나가셨다. 국경에서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았던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며 마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듯이 크게 울던 한 자매도 있었다. 다행히 휴대전화기는 바로 찾았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트라우마가 그들의 마음에 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슬로바키아에서 우리가 준비한 물품을 싣고 갈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 트럭 운전사가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줬다. 처음에 교회를 찾아온 난민들은 차가 있었지만 지금 오는 난민들은 지하에서 몇 주씩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기차로 어렵게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모든 출구가 차단돼 한 달째 주택 지하, 학교 지하 또는 지하철 지하에 정착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르키우에서부터 기차를 30시간 서서 타고 이곳에 도착한 세 명의 아이와 어머니 두 분을 만났다. 그들이 편히 쉬고 씻을 수 있도록 호텔을 알아보았으나 연결되지 않아, 마침 슬로바키아 현지 교회로 가게 됐다.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인도했다. 교회에는 따뜻한 음식과 달콤한 빵이 준비돼 있었고, 이들은 편하게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3월 15일, 이들은 다시 만난 아빠와 엄마를 통해 그들이 웃음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기쁜 일은 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들은 챙겨온 짐도 무거운데, 각자 성경책을 챙겨 독일로 떠났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구한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슬로바키아에서 주님은 신속하게 교회와 연결해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시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마련해 주셨다. 우리가 섬기러 왔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만 같다.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은혜 아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GPNEWS]

전에스더 선교사
(슬로바키아 미할로프체)

오피니언

산만한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기

▲ 출처: NETFLIX 공식홈페이지

본지가 TGC코리아와 제휴, 매일 인터넷판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TGC 칼럼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모든 것을 가볍게 취급해 버리는 문화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 코미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에서 천문학자 랜들 민디 박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박사과정 학생 케이트 디비아스키(제니퍼 로렌스)는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대 혜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곧장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제니 올리언(메릴 스트립)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그러나 그들의 긴박한 경고에도 대통령은 조롱 섞인 정치적인 수사로 대응한다. 이에 케이트는 절망하면서 만약 인류가 이 혜성을 막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100퍼센트 죽는다고 얘기하면 납득하겠느냐?”며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사실,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사실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시작한 영화 ‘돈 룩 업’은 제94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다. ‘돈 룩 업’은 기후 변화와 과학 부정에 대한 창의적 풍자로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무겁고 일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담 맥케이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대중문화로 정신이 산만해져서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세태를 잘 보여준다.

영화 제목 ‘돈 룩 업’은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는 혜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인은 도무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이 영화의 내용이 약간은 조잡하고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이 풍자적인 영화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에게 교훈을 준다. 오늘날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산만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긴박한 소식인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

미디어는 메시지다

‘돈 룩 업’에서 랜들과 케이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정치나 엔터테인먼트라는 ‘미디어(medium)’로 그들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수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메시지가 변질되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이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과 형식에 복음을 끼워 맞추려다 보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우리는 슈퍼볼 중계방송에 30초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이나 선거 유세장의 정치인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메시지와도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이를 꼭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겠다.

•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외친다.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편안하게 느낄 사람은 거의 없다.

• 복음은 치료가 우선이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복음의 주목적은 자기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 생에서의 자기실현이나 만족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듣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되새겨 주고, 그들에게 지구에서의 짧은 삶 너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실 분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뿐이시다.

•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주로 올리는 정치적인 메시지나 오락거리와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복음의 영향력은 이 세상의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 닥치기 전에 영원을 준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복음이 세상의 소셜미디어나 오락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구의 삶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영화에서 혜성이 다가온다는 소식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은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용서를 가르치고, 이 땅의 삶과 이 땅 너머의 삶까지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메시지와도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이를 꼭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 이스라엘 숭(Israel Soong) [GPNEWS]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 | 창조 이야기 (69)

진화론은 인본주의의 기초 철학 '내가 하나님이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은 인본주의의 기초 철학이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이다.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신다. 인본주의자들은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신적 존재는 인간이다. 인본주의자들은 역사의 전환점은 유일한 신이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펜실베니아의 공립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한 한 학생이 하나님은 없다고 했다.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니'라고 했다. 모든 것의 반은 아냐고 묻자 그는 또 다시 '아니'라고 했다. "잠시 동안 네가 모든 것의 반을 안다고 가정해 보자. 네가 모르는 반쪽에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 전혀 새로운 생각으로 한참 동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확신한다. "네가 무신론자라면 너는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라고 묻자 학생은 "그건 쉽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니까요. 내가 내 자신의 우주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5분 후에 내가 너를 총으로 쏠 것이다." "그러면 안됩니다." 나는 말했다. "그래도 된다. 내가 내 우주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쏘아도 좋다고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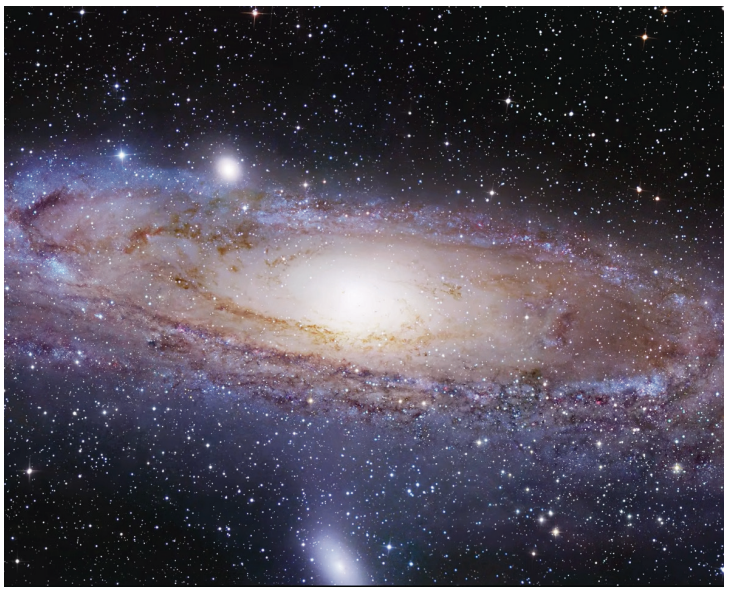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가? 이 질문을 전 세계의 많은 진화론자들에게 했지만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다. 질문은 단순하다. 한 러시아 천문학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말했다.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두렵다." 대단한 생각이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서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그가 이곳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곤경에 빠졌다. 우리는 시간당 6만 6000마일(10만 6216.7㎞)로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르원틴은 "우리가 일부 구조적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편을 드는 이유는 우리가 사전에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물질주의에 대한 헌신이다. 물질주의는 절대적이다. 우리는 신이 문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창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허용할 수 없다.'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넣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누가 세상을 소유하고 있고, 누가 규칙을 정하고,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터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라

남북 전쟁 당시, 한 사람이 자신은 양편 모두에게 관련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북군의 외투와 남군의 바지를 입었다. 전투가 끝나고 그는 죽은 채 발견 되었는데 그의 북군 외투에는 남군의 총알구멍이 가득했고, 그의 남군 바지에는 북군의 총알구멍이 가득했다. 한쪽 편에 속하는 게 더 낫다.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다. 지구상 가장 큰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인류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터다.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장군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점이 많다. 우리에게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오류 없는 책, 성경이 있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현명할 것이다. [GPNEWS]



▲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daveachuk 캡처

복음의 능력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라

무거운 죄에 눌려 지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가 역겨워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치료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진지하게 묻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떠올리려고 노력해보라.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생각해내라. 당신의 마음과 삶을 깊이 살펴라. 당신과 당신의 모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낱낱이 밝혀라. 당신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분이 본래 하시는 일이다. 당신의 마음과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당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당신의 양심 앞에 펼쳐 놓아라.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벌이는 씨름을 포기하지 말라. 죄책감에 못 이겨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행 16:30)라고 부르짖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라. [G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동역자 간증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주님께 매달렸다

▲ 인도네시아 현지 집 마당에서 사랑하는 두 자녀와 함께. 사진: 필자 제공

본지는 다양한 영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서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열방의 땅끝에서 현장 사역과 함께 기쁨으로 문서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사님의 은혜의 간증을 소개한다. 〈편집자〉

복음기도신문 삽화 섬김은 내 그림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게 됐다. 여전히 나 스스로는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생각했기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이기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일이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은 내 생각을 바꿔주셨다. 이 섬김을 통해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시간을 누렸다.

그림을 그려야 할 글들이 도착해 읽을 때마나 '주님 이번에도 역시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주님께 매달렸다. 그리고 삽화가 완성된 후에는 주님이 하셨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그림을 그려야 할 글들을 보면서 모든 고백들이 하나같이 나와 같았다. 글쓴이의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이고 글쓴이의 회개가 내 회개가 되었다. 글쓴이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었다.

글을 받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두 아이를 돌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마감날이 다 되어서야 가까스로 마감을 끝낸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글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무너져 있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다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보내주시는 고백들은 주님이 마치 나에게 "너에게 주는 편지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림을 그리게 된다. 때론 글을 읽다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감격하게 하실 때도 있다.

삽화 섬김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가 쉽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비록 시간이 더디 걸릴지라도 결국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까지 이끌어 주시며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보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조용히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데 말씀기도의 자리와 다를 바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처럼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을 주셔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싸움이 있지만, 앉게 된 후에는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주님이 울타리 되어 주신 것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세상의 일이었으면 평안함보단 조급함으로 했을 것을 알기에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 섬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 그 어떠한 것보다 그려지는 그림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GPNEWS]

고은선 선교사(인도네시아)

믿음의 현장을 가다

“언제나 맛있는 케익과 기술을 나누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신귀출** 대표(슈케익하우스)

ⓒ 복음기도신문

‘1만 원의 행복 슈케익’ 슈케익하우스는 전국에 직영점 2개, 19개의 체인점을 가진 제과점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제품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주문형 케익’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기업이다. 맛있는 케익을 나누고 더불어 기술을 나누는 기업을 꿈꾸는 신귀출 대표를 만나, 지나온 과정을 들었다.

- 모태신앙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아버지 쪽은 불교이고 어머니 쪽은 기독교에요. 그렇다고 친가나 외가가 제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친할머니는 저를 불교로 이끌어 주고 싶어 하셔서 어릴 때는 불교학교도 갔어요. 물론 교회에 가자고 하시면 교회도 나갔어요.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다가 청년이 돼서는 특별히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데도 나가진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3년 전에 만났을 때, 대학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 친구들이 대학 당시에도 늘 좋은 게 있다고 같이 하자고 권유하며 기다려줬어요.”

- 3년 전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때는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한 기독교대안학교에 교사였던 학군단 선배가 일일교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가겠다고 해서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교수님이 신앙생활을 권했는데 완곡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거의 1년을 넘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교수님께도 장문의 편지를 보냈죠. 감사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고요. 그래도 교수님은 안부를 물으시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는 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가족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다

- 어려운 시간을 만난 것이 주님을 만난 기회가 된 건가요?

“가정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고, 직원을 한꺼번에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닥치면서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마음을 기댈 곳이 없더군요. 저는 30살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리더의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상담을 해주고, 군대에서도 병사 친구들 상담해주면서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작 힘들 때는 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업을 이어받도록 권유한 어머니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낙담하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 제게 관심을 보여주셨던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 그렇게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군요.

“교수님은 아침 예배를 이미 다녀오셨는데도 저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셨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데 감사한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는 찬양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든든했어요. 또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당시에 목사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허락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절망에서 일어섰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들으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됐고, 한 고비를 넘는 일이 있으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렇군요. 갑작스런 질문이긴 하지만, 이름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불교도이신 할머님이 받아오신 이름이에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귀한 손주였기에,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귀할 귀(貴), 날 출(出), 귀출로 하라고 지어줬다고 해요. 어릴 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으면서 평범한 이름이 부러웠는데 나중에는 장점도 있더군요. 한번 만나면 특이한 이름이니 잘 기억해주셔서 감사했죠. 또 사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위기에 처한 부모님 사업, 동참하다

-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안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거네요. 그런데 케익이라는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부모님이 수원에서 오랫동안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군 장교로 있다가 제대하고 참여하게 됐어요. 그 무렵 지금의 수원 본점 맞은편에 대기업 베이커리가 생긴 이후 부모님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됐어요.

▲ 슈케익하우스에서 만든 케익(위·슈케익하우스 제공)과 신제품을 연구하는 개발실. ⓒ 복음기도신문

좀 고민하다가 2013년에 전역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사장 아들이라고 직원들이 호의적이지 않더군요. 어머니의 조언으로 정말 허드렛일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적응해 갔어요.”

- 그렇게 합류하게 되신 거군요. 그런데 부모님 사업에 참여하면서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전혀 모르는 분야이지만, 동종업계에서 성공한 가게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가게를 찾아가 물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기업 베이커리에서 못하는 게 있다. 그걸 했더니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당시에 어떤 기업에서 내놓은 ‘만 원’으로 눈길을 끄는 광고를 보게됐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케익 가격을 모두 만 원으로 결정했어요. 당시 적은 사이즈의 케익은 15000~16000원 할 때였죠. 1단은 만 원, 2단은 2만 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또 24시간 영업을 했는데, 기념일에 쓰려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더군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앞에 매장을 냈는데, 장사가 무척 잘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홍대 앞에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 위기에서 다시 기회를 얻으셨네요.

“그런데 홍대에서 일을 하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본사 직원을 설득해서 간신히 매장에 파견을 보냈는데, 기대한 매출의 20~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본사에서 최고 수준급의 직원들이 왔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저에게 ‘어떡하냐?’ 안타까워했어요. 당시 출근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매장 앞에 손님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군요.

“당시가 크리스마스 2주 전쯤이었는데, 저희 가게 케익을 사 가신 분이 페이스북에 우리 케익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려줬어요. ‘케익이 만 원이래요. 어떻게 케익이 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많이 공유되면서 몇 년 걸릴 입소문이 하루아침에 유명 베이커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님이 몰려오는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교통정리를 했어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SNS에서 고객의 ‘한 줄 평’으로 대반전

- 성공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위기는 또 오더군요. 우리가 잘되니까, 우리를 모방한 가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와 비슷한 이름을 쓰는 업소가 등장하고, 납품하던 거래처들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단가를 올려주고 우리에 대한 납품 정보를 달라고 했던 것이죠. 실망도 컸어요. 그때 어머니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거래를 끊을 때도 거래처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거래처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 다시 거래하자.’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 그런 과정을 거쳐 프랜차이즈를 하시게 됐군요.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요청하셨는데 처음에는 다 거절했어요. 방법도 모르고, 뭔가 정리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도 있고, 또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가 생겨, 지금은 19개의 체인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는 프랜차이즈를 내도 그들이 함께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핵심 물류는 우리가 공급하지만, 만약에 다른 물품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입하라고 했죠. 우리가 사사로운 것까지 공급해도 엄청 큰 부자가 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품들을 다 공개하고 열어드렸어요.”

- 대표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신 것 같네요.

“상생하자는 게 제 모토에요. 내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 나누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머니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를 이해해 주세요. 항상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나중에 우리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점주님들이 사업아이템을 제공해 주기도 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서 케익시트 단가를 올렸는데,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는데도 모든 점주님들이 아무 말 없이 다 올려 주셨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했죠.”

-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게 사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7)

나를 위해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일러스트=이예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7~9)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을 우리 것으로 다 내어 주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소망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영광에 사로잡히셨기에 육체를 입으시고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셨다.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게 괴로울 때가 있다. 아픔, 배고픔, 추움, 외로움도 우리는 느낀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모든 것을 겪으셔야 했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영광이었다.

인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순수해진다는 것이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 사랑을 누리게 된다. 그 때의 사랑은 어디에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을 순도 100%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빚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견고해지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단단해진다. 작은 유혹이나 어떤 시련 속에서 변절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천하의 무엇을 가지고 흔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우리는 견고해야 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 39)

천하가 다 덤벼도! 무슨 사상이 달려들어도! 이것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돌아보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고 살게 되도록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되는가?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한 해, 마지막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의 기회의 때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의 닻을 내리자. "예수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끝 오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분들인들 왜 외롭지 않을까. 왜 혼돈하는 시간이 없겠는가. 왜 물러서고 싶은 유혹을 안 받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있다! 믿음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2021년 1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carmel
D/E/S/I/G/N
카르멜디자인
포스터_현수막_로고_홈페이지
idea를 design하다
"미자립교회, 선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www.carmel.company
carmel0316@naver.com
TALK '카르멜디자인' 채널 추가

만남과 나눔을 요리하는 버거데이
건강한 샌드위치 주먹밥 과일 단체도시락
010-2207-2787 | 대구시 수성구 천을로 117

강원냉동 엔지니어링

취급품목 각종제빙기, 중대형냉장고, 쇼케이스, 슬러시기계
출장 A/S 및 신품 중고품 판매
대표이사 이병철 장로
033-744-2933 / 010-3856-4802
gkcm119@naver.com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Interview

〈5면에 이어〉

장애인을 돕다가 이들과 함께 하는 기업을 꿈꾸다

업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인다는 게 감사하네요. 앞으로 이 기업을 통한 비전이 있나요?

"장애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을 단순히 돕기만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단순화해서 이들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공장내부를 장애인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또 발달장애인 교육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또 고아원에 케익을 보내기도 했는데, 허락하는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려고 해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제 주변에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고, 사업을 포기한 사장님들도 많아요. 저도 점주님들과 코로나 이후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드리면 위안을 받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우리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PNEWS]

Y.K.

△사랑하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 복음기도신문

믿음의 삶

성경의 진리에 주목하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됐다

내가 복음사관학교라는 공동체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됐다. '내게 복음이 실제인가?' '믿음은 움직임을 동반하는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와 같은 질문들로부터 출발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야고보서 1장 5~8절 말씀을 받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는 철저히 죽고 주님만 사시는' 시간에 나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훈련을 받으며 이제껏 내가 자기 의로 살아왔고, 여전히 복음만이 전부가 되지 않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경배와 찬양 시간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믿어졌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게 됐다.

주님 앞에 문제가 된 나의 태도는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여러 생각과 틀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진리에 집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실제로 다가왔다. '나의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내 존재'가 십자가에서 다 끝장난 일임이 믿어졌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여야만 하는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새겨졌다. 그리고 이제는

일러스트=고은선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됐다.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선교의 전략은 정말 복음이 실제 된 증인 자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셨다. 이제껏 복음이 아닌 외적인 방법이나 전략으로 선교를 바라보던 내게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다.

또한, 한 주 동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 기도에 참여하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해주셨다! 기도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해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훈련을 마쳐갈 무렵 내 삶에서 정산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나의 삶과 소유를 단순화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 전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한다. [GPNEWS]

복음의 소리 1670-3160 316 Q+A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어려움 겪게 되니 '잔인한 순종' 아닌가 질문이 생겨요

Q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친정 아버지의 유산을 사업하는 막내에게 주게 됐습니다.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정에 무심한 친정 식구들에게 서운함이 들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너무 큽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A 하나님은 결혼한 두 사람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배우자가 나와 같은 마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마음을 받았다면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언제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증인들은 대부분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죄인인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주며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알며, 그런 나를 사랑해주신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잔인해 보이는 자리에서조차 기쁨과 감사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지금 겪고 있는 눈앞의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에 순종한 것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한 일임을 주님이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PNEWS]

부흥을 위하여

북, 평양 외곽 거주자 '410호 대상' 적발해 평양에서 추방

평양 인민위원회, 뇌물 1만 달러 충성자금 내면 평양 거주 허용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북한 당국이 평양 변두리 지역 거주자인 '410호 대상' 주민들 가운데 허락없이 평양 중심 구역으로 옮겨 살고 있던 주민들을 교외로 추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이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임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있던 410호 대상자들이 당국에 적발돼 아파트를 회수(몰수)당하고 본래 살던 곳으로 쫓겨갔다고 RFA는 밝혔다.

RFA는 "하지만 평양시 인민위원회에 1만 달러 이상의 충성자금을 공식적으로 바치면 410호 대상이어도 중심구역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며 북한의 뇌물과 뒷돈 거래의 실상을 공개했다.

이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공산주의를 내세우지만, 북한은 평양에서 중심구역에 사느냐 변두리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시민이라도 상층과 하층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 전경. 출처: 유튜브 채널 cities 캡처

이에 따라 평양 외곽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돈을 많이 벌어 중심구역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식으로 신분 개조를 시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소식통의 경험을 소개했다.

북한의 410호 대상은 김일성 시대부터 평양 외곽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던 주민들로, 평양 중심 구역에 거주할 수 없다.

이처럼 주민들이 평양 중심 구역을 선호하는 것은 평양 변두리 구역에 비해 전기와 식량 등 국가공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집 가격도 1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알려졌다. [GPNEWS]

"북한에 날아든 전단지, 주민들 생각 바꿀 수 있다"

IRI 토론회, 탈북민 경험담 밝혀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날아온 전단지를 보고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RFA가 최근 전했다.

탈북민 류성현 씨는 지난 18일 국제공화연구소(IRI)의 한국사무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한 '북한의 정보 자유' 토론회에서 "북한에 있을 때 전단지를 보며 김씨 일가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류씨는 이어 "전단지는 직접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화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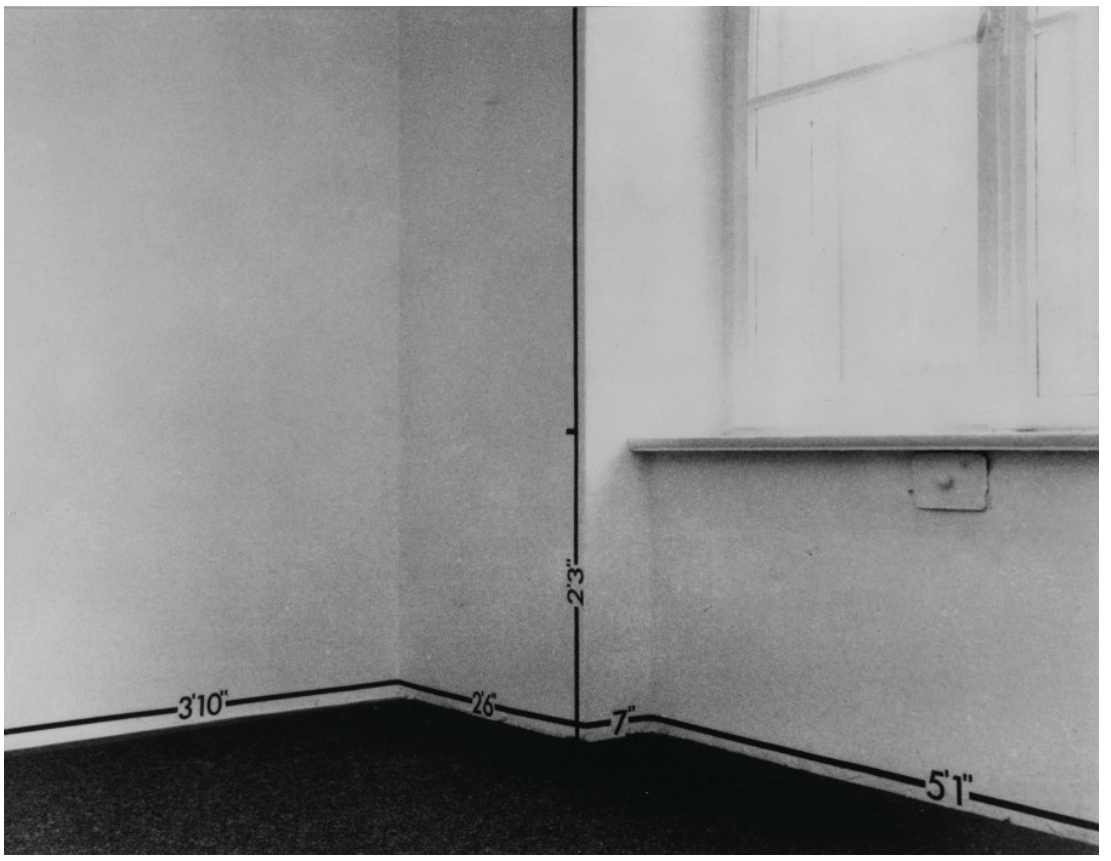
이어 "북한이 외부 정보로 인해 체제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마련된 이후 외부 정보를 접하는 일은 과거보다 몇 배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자신도 한국 내 탈북민이 500명이 아니라 약 3만 5000명이라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학과 컴퓨터 분야 일인자로 알려진 탈북민 장혁 씨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드라마는 어린 연령대에서 찾고 있으며 20대 이상부터는 북한 내부에서 형성된 시장질서 안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면서 "소득을 높이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화의 첫 걸음이다.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멜 보흐너의 〈측정〉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믿음



▲ 작품설명: 멜 보흐너(Mel Bochner), 〈측정: 방(Measurment: Room)〉, 1969, 검은 테이프, 뮌헨의 갤러리 하이너 프리드리히에 설치, 현 MoMA소장

1969년 멜 보흐너는 뮌헨의 한 갤러리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작품'을 전시했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들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하얀 벽에 있어야 할 그림이나 조각 대신, 검은 선과 숫자만 무심하게 쓰여 있었다. 선은 벽과 문틀과 창틀을 따라 그어졌고, 이 검은 선 위에 적힌 숫자들은 벽, 문, 창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잰 것이었다. 보흐너는 갤러리 벽의 사이즈를 표기함으로써, 그 벽의 실체를 드러냈다. 드러난 것은 단지 그 크기의 벽일 뿐이었다.

이렇게 급진적인 작품은 사실 인간의 지각 경험을 다룬 것이다. 사람은 심리 상태에 따라 대상을 지각한다. 어떤 대상은 실제보다 커 보이고, 반대로 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때 실제 사이즈를 알려주면 대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동시에, 나의 지각 능력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깨닫게 된다.

정말 그렇다. 어떤 이는 커 보인다. 그래서 실제 키를 알면, 그렇게 작았냐며 놀라곤 한다.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지각 오류는 존경하거나 두려운 대상에게 일어난다. 보흐너의 작품이 설치된 갤러리 또한 미술가에게는 만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선망의 대상이자, 막막한 장벽이며, 압력을 가하는 권력적 공간이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보흐너의 작품을 보고, 그리 숨 막힌 흰 벽이 고작 이 정도였나를 느꼈다.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도 그렇다. 두려울 때 문제는 크게 느껴진다. 그럼 어김없이 절망과 좌절, 불안과 낙심이 엄습해 온다.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나는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이성', 다른 하나는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둘 중 무엇이 내게 평안을 줄까? 문제의 크기를 아는 이성일까, 아니면 이 문제를 문제 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일까.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쌍치마을 부흥운동과 선교사 유진 벨

한국 교회사에서 평양 부흥의 해인 1907년도에 세워진 쌍치마을의 부흥운동은 필자에게 남다른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다. 나는 이를 개신교회 운동으로 칭하고 싶다. 허나 왜 쌍치라고 그 마을을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진 벨'(Eugene Bell, 1868~1925) 미국 선교사는 당시의 교통수단인 당나귀를 타고 광주를 떠나서 추월산을 넘어 이곳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곳 전북의 쌍치마을은 마치 영국의 파나인 레이크 지방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곳이다.

유진 벨의 딸은 한국에서 20대 초반의 미국 선교사 윌리엄 린튼과 결혼해 한국을 섬겼다. 이 윌리엄 린튼의 3남(휴 린튼)의 아들 존 린튼(John Linton, 인요한) 박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는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서 1959년도 12월에 태어났다. 필자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런 연유로 만약에 그와 만남이 허락돼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영어로 한국말로 풍성한 교제를 하다 보면 며칠 밤도 모자라지 않을 듯 싶다. 가까운 미래에 귀국하게 되면 가장 만나고 싶은 분 중 한 사람이다.

배유지라는 사랑스런 한국명으로 알려진 유진 벨 선교사는 미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지금부터 127년 전인 1895년 4월 9일, 당시 조선으로 파송받았다. 그때 나의 조국 조선은 청일전쟁(1894~1895)을 거치며, 콜레라와 폐렴 및 결핵으로 아주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예수 안에 회개의 복음만을 전할 목적'

복음적 선교 마인드를 가진 보수적 신학 교단의 요람인 남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그는 선교사로의 특권적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 안에 회개의 복음만을 전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던 그는 주님의 섭리로 고종황제를 통해 콜레라 퇴치 사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는 마치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두 수선공 출신의 윌리엄 케리 선교사가 주님의 은혜로 인도의 교육 선교사로 이름을 남기던 것과 비교된다. 그렇게 사랑하는 필자의 고국 땅에 도착한 유진 벨 선교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교회는 물론, 당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던 병원과 교육 기반을 세우기 위한 학교를 세우는 데 힘썼다.

▲ 광주 양림동에 있는 유진벨선교기념관. ⓒ 복음기도신문

50여 개의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다

그는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에서 기도하며 찾던 중 전북의 옹달샘 같은 쌍치마을의 교회를 포함한 50여 개의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웠다. 그가 세운 학교와 병원은 광주 수피아여학교 외 3개의 학교,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한 인물인 선교사님의 후대로 이어진 유진 벨의 가계는 참으로 자랑스럽다.

이처럼 고국의 역사에 또 개신교 역사의 모범적인 저들의 삶과 사역은 해외에서 오래도록 남아서 사역하는 필자에게도 깊은 귀감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소나마 완성한 행동을 배우며 감사한다. 지난날 사역을 통한 저들의 업적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미래를 믿음으로 다시금 붙잡는 귀한 도전에 감사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GPNEWS]

민경수 목사·선교사
(본지 영국 통신원)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3. 3 ~ 3. 2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권순효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유남 김지영 박민숙 박성규 박신희 박영순 신경순 안수경 이영선 이은주 이장원 장근혜 정금자 정유석 정효신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쉠 서현교회교정팀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주소망교회 은혜신일교회 참좋았더라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